

고려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아 우아하고 귀족적인 미술 문화를 이루었고, 송, 원과의 발한 국제 교류를 하며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렸다. 고려 시대에는 사찰을 중심으로 대규모 건축과 탑이 조성되었고, 정교하고 섬세한 필치의 불화도 제작되었다. 히 '비색'이라 불릴 만큼 요묘한 채색과 아름다움을 지닌 고려의 청자는 중국에 명성을 얻었다. 상감 청자는 도자에 상감 기법을 응용한 것이고, 직지심체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유물로는 청자 상감 운무늬 매병, 수월관음도 등이 있다.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
42cm/12세기 중엽)



조각 역삼각형의 얼굴과 가늘고 긴 상체, 원형의 커다란 귀걸이, 화려한 영락으로 장식된 이 금동 관음보살 좌상은 몽골·티베트 계열의 불교인, 라마 양식을 따르고 있다.
금동 관음보살 좌상(높이 38.5cm/13세기)



금속 대칭형으로 장식된 향로이다.
길이 향로(청동/높이 42cm/
12~13세기)



회화 천 년 전의 채색화인 고려 불화에서 조선 시대 이전 회화의 산수와 인물 표현을 엿볼 수 있다. 서구방(생물년도 미상/고려) 수월관음도(비단에 채색/165.5×101.5cm/1323년)



- ▲ 건축 가볍게 올라간 팔작 지붕의 처마 선, 무게를 분산하여 기둥에 전달하는 나무 장식물, 배흘림 기둥이 조화롭다. 부석사 무량수전(13세기 고려)
- ◀ 탑 고려 시대에는 사각형 평면에서 벗어난 다각형의 다층(多層) 석탑이 우리나라 북쪽 지방에서 주로 유행했는데, 이 탑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불교 문화 특유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면모를 잘 보여 준다.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높이 15.2m/10세기)